

## 아킬레우스 (Achilleus 라/Achilles)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 아이아코스의 손자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가장 용감했던 그리스군 장수로서 50척의 함선들과 수많은 뮈르미도네스족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쳤지만 마지막 10년째 되던 해에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막사에 틀어박힌 채 전투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수세에 몰리던 트로이아인들이 용장 헥토르를 앞세우고 그리스군이 쌓아놓은 방벽 안으로 쇄도하여 그리스군 함선들을 불사르려 하자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에게 자신의 무구를 입혀 출전시킨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인들을 방벽 밖으로만 몰아내고 트로이아까지는 추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파트로클로스는 전투에 열중한 나머지 그 말을 잊고 트로이아 성문 아래까지 추격하다 헥토르의 손에 죽는다. 아킬레우스는 친구를 위해 복수하겠다는 일념에서 아가멤논과 화해한 다음 어머니 테티스의 부탁을 받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무구들을 무장하고 출전해 수많은 트로이아인들과 함께 헥토르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끌고 온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하는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가 원한과 슬픔을 잊고 프리아모스에게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내주는 장면으로 끝난다. ‘서사시권 서사시들’의 하나인 『아이티오피스』(Aithiopsis)에서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에 원군으로 온 여인족 아마조네스의 여왕 펜테실레이아(Penthesileia)와 에오스(새벽의 여신)의 아들이자 아이티오피스족의 왕인 멍논을 죽이고, 자신은 파리스 또는 아폴론의 화살에 맞고 죽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서사시권 서사시인들과 후기 작가들에 따르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유아 때 그를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담그다가 남편 펠레우스의 방해로 그를 쥐었던 발뒤꿈치는 강물에 닿지 않아, 신체의 다른 부위는 부상당하지 않지만 발뒤꿈치만은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되는데 결국 그곳에 파리스의 화살에 맞고 죽었다고 한다. 아킬레우스는 이아손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헤라클레스 같은 뛰어난 영웅들을 길러낸, 음악과 예언과 의술에 능한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사사한다. 오뒷세우스는 귀향 도중 저승에 가서 그와 만나는데, 후기의 신화에 따르면 그는 불사의 몸으로 흑해의 한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의 딸 폴리ქ세네(Polyxene)를 전리품으로 요구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졌다고 한다. 아킬레우스는 신들의 결정에 따라 장수하지만 명성 없는 삶과, 단명하지만 명성을 얻는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후자를 선택한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알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소녀로 변장시켜 스퀴로스 섬에 있는 뤼코메데스(Lykomedes)왕의 궁전에 숨겨두고 뤼르라(Phyrha) ‘빨간 머리 여자’란 뜻)라고 부르게 했다고 한다. 이 때 왕의 딸 데이다메이아(Deidameia)가 그에게 아들 네옵톨레모스(Neoptolemos) 일명 Pyrrho ‘빨간 머리 남자’란 뜻)을 낳아준다. 그러나 그리스군의 예언자 칼카스가 아킬레우스 없이는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오뒷세우스가 결국 그를 찾아내어 트로이아로 가도록 설득한다.

## 아트레우스 (Atreus)

아트레우스는 펠롭스의 아들로 튀에스테스와 형제간이며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의 아버지다. 후일 수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된 저주 받은 아트레우스 가(家)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제우스의 아들로 황금이 많은 뤼디아를 통치하던 탄탈로스는 신들의 전지(全知)를 시험해보려고 아들 펠롭스를 죽여 그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여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신들 앞에 내놓는다. 마침 딸 페르세포네를 찾지 못해 큰 슬픔에 잠겨 있던 데메테르 여신만이 어께의 일부분을 먹었을 뿐 다른 신들은 내막을 알고는 펠롭스를 다시 살려주고 없어진 어께 부분은 상아(象牙)로 대치해준다. 그 짓값으로 탄탈로스는 지하의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히 허기와 갈증으로 고통 받게 된다. 탄탈로스의 딸 니오베는 테바이 왕 암피온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딸 각기 일곱(또는 여섯)명씩 두고 행복하게 살았으나 어느 날 쌍둥이 남매밖에 낳지 못한 레토 여신보다 자기가 자식을 더 많이 낳았다고 자랑하다가 아폴론이 일

곱 아들을, 아르테미스가 일곱 딸을 쏘아 죽이자 슬픔을 견디다 못해 돌기등으로 변했다고 한다.

한편 펠롭스는 펠로폰네소스(‘펠로스의 섬’이란 뜻의 이 지명은 펠롭스에게서 유래했다)반도 오이노마오스(Oinomaos)와의 전차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는 오이노마오스의 마부 뮈르틸로스(Myrtilos)를 매수해 경주 때 바퀴가 빠져 왕이 전차에서 떨어져 죽게 만든다. 그러나 펠롭스는 약속한 보수를 주기는커녕 마부를 바다에 던져 죽인다. 그리하여 펠롭스가문에 저주가 시작된다. 저주는 먼저 펠롭스의 두 아들에게서 실현되는데 아트레우스가 뮈케네의 왕이 되었을 때 튀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내 아에로페(Aerope)를 유혹하다 발각되어 추방된다. 나중에 아트레우스는 서로 화해하자며 튀에스테스를 불러놓고는 그의 두 아들을 죽여 그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벌인다. 그러나 나중에 내막을 알게 된 튀에스테스가 질겁을 하고 달아나며 아트레우스 가문을 저주한다. 튀에스테스는 모르고 자신의 친딸 펠로피아(Pelopia)와 교합하여 아이기스토스를 낳는데 바로 이 아이기스토스가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트로이아로 원정 가고 없는 사이 아가멤논의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를 유혹하여 교합하고, 아가멤논이 트로이아를 함락하고 귀향하던 날 그녀의 손을 빌어 아가멤논을 죽인다. 이들 두 남자는 그 뒤 7년 동안 ‘황금이 많은’ 뮈케네를 통치했으나 8년째 되던 해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Orestes)가 돌아와 누이 엘렉트라(Electra)의 도움으로 이들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그 뒤 오레스테스는 모친 살해죄를 씻고 가문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친구 뮈라데스(Pyllades)와 함께 아폴론의 명령에 따라 타우로이족(Tauroi)의 나라(지금의 크림 반도)로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가지러 갔다가, 순풍을 빌기 위해 아울리스 항에서 그리스군에 의해 제물로 바쳐져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누이 이피게네이아를 만나 그녀의 도움으로 여신상을 가지고 앳티케(Attike 라/Attica)로 무사히 돌아온다. 여신상은 앳티케에 있는 신전에 세워지고 이피게네이아는 그곳에서 아르테미스의 영원한 여사제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피게네이아는 낙원인 엘뤼시온 들판에서 아킬레우스와 결혼했다고 한다. 한편 엘렉트라는 뮈라데스와 결혼한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뮈케네의 왕권이 펠롭스→아트레우스→튀에스테스→아가멤논으로 순조로이 이어진 것으로 그리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

## 아이아스 (Aias 라/Ajax)

아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장수는 두명인데 그중 이른바 ‘큰 아이아스’는 텔라몬과 에리보이아(Eriboia) 또는 페리보이아(Periboia)의 아들로 살라미스(Salamis)인들을 이끌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한다. 그리스군 장수들 중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용감하고 당당한 장수다. 아킬레우스가 말다툼 끝에 아가멤논에게 원한을 품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막사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디오메데스가 그리스군의 공격을 주도했다면, 아이아스는 헥토르를 앞세우고 노도처럼 몰려오는 트로이아군에 밀려 그리스군이 퇴각할 때 뒤에서 엄호하여 이들의 궤멸을 막는다. 또 헥토르가 누구든 좋으니 일대일로 싸워 전쟁을 끝내자며 결투를 신청하자 그리스군은 모두 아이아스가 결투 상대로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과연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헥토르를 압도하지만 두 사람은 결투를 중단하고 선물을 교환한다.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뒤 그의 유명한 무구들을 놓고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 사이에 경합이 벌어졌을 때 오뒷세우스가 언변으로 여러 장수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오뒷세우스에게 투표하자 아이아스는 자신의 공적이 무시당한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살한다.

오뒷세우스는 저승에 가서 그를 보고 말을 걸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고 피해버린다. 이른바 ‘작은 아이아스’는 오일레우스(Oileus)의 아들로 로크리스인들을 이끌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한다. 체구가 작아 ‘작은 아이아스’라고 불리던 그는 훌륭한 창수(槍手)이자 뛰어난 경주 선수다. 용감하기는 하나 오만하여 신들, 특히 아테네 여신의 미움을 샀는데, 트로이아가 함락되었을 때 그가 팔라스 아테네의 여신상인 팔라디온(Palladion 라/Palladium)으로 피신하여 그것을 붙잡고 있던 캣산드라의 머리채를 잡고 아테네의 제단에서 그녀를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그는 귀향 도중 신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난

파션에서 살아남았다고 큰소리치다 해신 포세이돈의 미움을 사 익사한다.

## 디오메데스 (Diomedes)

디오메데스는 튀테우스와 데이필레(Deiphyle)의 아들로 트로이아 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다. 우이디푸스가 왕위에서 물러난 뒤 그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가 테바이의 왕권을 놓고 서로 다투자 아르고스 왕 아드라스토스(Adrastos)는 자기 딸 아르게이아(Argeia)와 결혼한 사위 폴뤼네이케스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일곱 장수를 모아 일곱 성문의 테바이를 공격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은 동시에 서로 찢러 죽이고 아드라스토스를 제외한 나머지 장수들 역시 모두 전사하는데, 아드라스토스의 사위로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사람’중 한 명인 튀테우스도 이때 죽는다. 그 뒤 아드라스토스는 죽은 장수들의 아들들, 이른바 ‘후계자들’(Epigonoι)과 재차 공격하여 테바이를 함락시키는 데 디오메데스도 바로 이 원정에 참가한다. 이 사건은 트로이아 전쟁 발발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드라스토스의 딸 아이기알레이아(Aigialeia)와 결혼한 디오메데스는 아드라스토스가 죽자 아르고스 시와 이나코스 평야를 통치하게 된다. 디오메데스는 80척의 함선과 수많은 아르고스인들을 이끌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귀향한다. 그의 무훈담으로는 그가 아테네의 도움으로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부상을 입히며 트로이아인들을 유린한 이야기와 트로이아 편에서 싸우던 퓌키아의 글라우코스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기사도적 우정을 다짐하는 이야기, 밤에 오뒷세우스와 단둘이서 트로이아 진영을 정탐하러 갔다가 트로이아 정탐꾼 돌론을 죽이고 원군으로 트로이아에 막 도착한 트라케 왕 레소스의 훌륭한 말들을 빼앗은 이야기등이 특히 유명하다.

## 오뒷세우스 (Odysseus 또는 Odysseus, 앳티케 방언 Olytteus, 코린토스 방언 Olyseus, 라/Ulixes)

오뒷세우스는 이타케 왕 라에르테스와 아우톨뤼코스의 딸 안티클레이아의 아들로 페넬로페의 남편이자 텔레마코스의 아버지다. 그리스의 많은 영웅들이 헬레네에게 구혼했을 때 그 역시 구혼자 중 한사람이었지만 헬레네의 아버지 퓌다레오스에게 구혼자들 중에서 누가 헬레네의 남편이 되든 나머지 사람들 모두는 남편으로서 그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두라고 조언한다. 그 공로로 오뒷세우스는 퓌다레오스의 아우인 아카리오스의 딸 페넬로페와 결혼하게 된다. 그 뒤 헬레네가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와 도주하자 그녀의 남편 메넬라오스는 구혼자들의 맹세를 내세우며 트로이아 원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오뒷세우스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아 미친 사람 행세를 하지만 팔라메데스에 의해 발각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사절단이 이타케로 찾아와 맹세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오뒷세우스는 소를 말 또는 당나귀와 함께 쟁기에 메고 밭을 갈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리고 있었는데 팔라메데스가 그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의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쪽에 갖다놓자 그가 쟁기질을 멈춤으로써 광증이 탄로났다고 한다. 오뒷세우스는 이에 앙심을 품고 팔라메데스가 황금을 받고 적과 내통하고 있다고 모함하여 돌에 맞아 죽게 만든다. 『일리아스』에서 오뒷세우스의 뛰어난 활약상으로는 아가멤논에게 원한을 품고 막사에 틀어박힌 아킬레우스를 다시 전투에 참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아킬레우스를 찾아간 일(9권)과 디오메데스와 단둘이서 트로이아 진영을 정탐하러 갔던 일(10권)을 들 수 있다.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의 이름난 무구들을 누가 가져야 옳은지를 놓고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 사이에 경합이 벌어졌을 때 뛰어난 언변가인 오뒷세우스는 자기가 그리스군에게 가장 많이 공헌했다며 여러 장수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오뒷세우스에게 투표하자, 아이아스는 자신의 공로가 무시당한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살한다. 오뒷세우스는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톨레모스와 함께 렘노스 섬으로 가서 명궁 필록테테스를 트로이아로 데려간다. 트로이아를 함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목마(木馬)도 그가 고안해냈다고 한다.

『오뒷세이아』에서 그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참울성 많고 언변에 능한 탁월한 인물로 그려져 있고 그에 관한 비판적인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빠져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서사시권 서사시들’이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헤카베』(Hekabe), 『오레스테스』(Orestes), 『트로이아의 여인들』(Troïades)과 소포클레스(Sophokles)의 비극 『필록테테스』(Philoctetes) 등에서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하고 약삭빠른 인물로 그려져 있다.

## 네스토르 (Nestor)

네스토르는 벨레우스와 클로리스의 아들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남부 멧세네 지방에 있던 펠로스의 왕이다. 그는 노령에도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했다가 무사히 귀향하는데 뛰어난 지혜와 언변으로 언제나 친구들에게 존경 받는다. 그의 가계(家系)는 다음과 같다. 텃살리아 지방의 이올코스 시를 통치하던 크레테우스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아이손과 아뫼타온과 페레스는 그의 아들들이고 펠리아스(Pelias)와 벨레우스는 그의 아내 튀로 하신(河神) 에니페우스의 모습을 하고 접근한 포세이돈에게서 잉태한 아들들이다. 크레테우스가 죽자 펠리아스는 이복형인 아이손의 왕권을 찬탈하고 친아우인 벨레우스를 추방한 다음 스스로 이올코스의 왕이된다. 그 뒤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 돌아와 왕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펠리아스는 흑해 동안(東岸)의 콜키스에 가서 황금 양모피를 가져오면 왕권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아손은 원정대를 모집하여 아르고(Argo '쾌속선'이란 뜻)호를 타고 당시로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항해 끝에 콜키스에 가서 그곳의 왕인 아이에테스의 딸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온갖 시련을 이기고 황금 양모피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 뒤 메데이아는 마술로 펠리아스를 젊게 해주겠다고 그의 딸들을 속여 그들 손으로 아버지를 토막 내게 만든다. 그러나 남편으로 삼았던 아이손에게 배신당한 메데이아는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손수 살해하고 아테나이 왕 아이게우스(Aigeus)에게 몸을 의탁한다. 한편 유명한 아드메토스의 아버지인 페레스는 텃살리아에 페라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아뫼타온은 벨레우스와 함께 멧세네 지방으로 가서 펠로스를 세우고 에이도메네(Eidomene)와 결혼하여 비아스(Bias)와 예언자 멜람푸스의 아버지가 된다.

## 이도메네우스 (Idomeneus)

이도메네우스는 크레테 왕으로 테우칼리온의 아들이자 미노스의 손자다. 그는 헬레네의 구혼자들 중 한 명으로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하여 노장(老將)임에도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무사히 귀향한다. 그러나 호메로스 이후의 신화에 따르면 이도메네우스는 트로이아 귀향 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자 만약 무사히 크레테로 돌아가면 맨 먼저 만나는 생물(生物)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포세이돈에게 서약했는데 그가 맨 먼저 만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맨 먼저 마주 나온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서약에 따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자 온 크레테 섬에 역병(疫病)이 퍼졌고, 그래서 크레테인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 그를 크레테에서 추방하자 그는 남부 이탈리아로 건너가 정착했다고 한다.

## 파트로클로스 (Patroklos)

메노이티오스의 아들로 아킬레우스의 죽마고우이자 시종이다. 아킬레우스가 말다툼 끝에 아가멤논에게 원한을 품고 막사에 누워 있는 동안 헥토르를 앞세운 트로이아인들이 그리스군을 무찌르고 함선들을 불사르려 하자 그는 아킬레우스의 무구들로 무장하고 전투에 참가하여 트로이아군을 성벽 밑까지 추격하다가 헥토르의 손에 죽는다. 그리하여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다시 전투에 참가하여 헥토르를 죽인다.

## 안틸로코스 (Antilochos)

아킬레우스의 친구 안틸로코스는 네스토르와 에우뤼디케(Eurydike)의 장남이다. 그는 파트로클로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아킬레우스에게 맨 먼저 전한다. 그는 뛰어난 전사였으며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 때에는 전차 경주에서 2등을 들어온다.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은 뒤 아이티오페스족을 이끌고 트로이아에 원군으로 와 있던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 멤논의 손에 죽는다.

## 테우크로스 (Teukros)

테우크로스는 텔라몬과 헤시오네의 아들로 ‘큰 아이아스’의 이복동생이며 그리스군에서 가장 뛰어난 궁수다. 후기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갔으나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을 놓고 오뒷세우스와 다투다가 저서 자살한 까닭에 아버지에게 쫓겨나 퀴프로스 섬에 가서 그곳에 그의 고향 이름을 따서 살라미스라는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 헬레네 (Helene 라/Helena)

스파르테 왕 뉘다레오스와 그의 아내 레다 사이에는 클뤼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와 이른바 디오스쿠로이들(‘제우스의 아들들’이란 뜻)인 카스토르와 폴뤼데우스케스가 태어난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과 결혼했으나 10년 만에 트로이아에서 개선하는 아가멤논을 간부(姦夫) 아이기스토스와 공모해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헬레네는 아가멤논의 아우 메넬라오스와 결혼했으나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와 도주하여 결국 트로이아 전쟁의 불씨가 된다. 그런데 제우스가 백조의 모습을 하고 레다에게 접근한 까닭에 이들 가운데 누가 제우스의 자식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뉘다레오스의 딸이고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디오스쿠로이들에 관해서는 둘 다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과 둘 다 또는 둘 중 폴뤼데우스케스만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메로스는 디오스쿠로이들은 뉘다레오스의 아들이고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뒷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뉘다레오스 왕의 동생 아카리오스의 딸이니 헬레네와는 사촌간이다.

## 헤라클레스 (Herakles 라/Hercules)

헤라클레스는 테바이의 암피트뤼온이 원정 가고 집을 비운 사이 제우스가 그의 모습을 하고 그의 아내 알크메네에게 접근하여 낳은 아들로 그리스의 영웅들 중에서도 힘과 용기와 인내력과 동정심으로 특히 명망이 높다. 헤라클레스는 아폴론의 손자 에우뤼토스에게 궁술을, 아우 툴뤼코스에게 레슬링을, 폴뤼데우스에게 무기 사용법을, 리노스(Linos)에게 음악을 배웠다고 한다. 헤라클레스와 관련해서는 그의 ‘12고역’이 유명한데 호메로스는 그중 하데스의 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나 요람에 누워 있을 때 제우스의 질투심 많은 아내 헤라가 뱀 두 마리를 보내 그를 감아 죽이게 했으나 오히려 그가 뱀들을 죽였다고 한다. 그가 장성하여 키타이론(Kithairon)산에서 양 떼를 치며 장차 어떤 삶의 길을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쾌락과 미덕의 두 여자가 나타나 각각 즐거운 삶과 힘들지

만 영광스런 삶을 제외하자 그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선택’도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그 뒤 그는 테바이로 돌아가는 길에 테바이 시가 당시 보이오티아 지방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인 오르코메노스에 바치던 공물을 면제토록 해준 까닭에 테바이 왕 크레온이 딸 메가라를 아내로 준다. 그러나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던 헤라가 그를 미치게 하자 그는 처자를 모두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는 테바이에서 추방되어 죄를 정화하기 위해 타퀼스 왕 에우뤼스테우스(Eurystheus) 밑에서 12년 동안 ‘12고역’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호메로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라는 같은 날 태어날 영웅 페르세우스의 후손들 중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장차 인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로 서로 맹세했는데, 헤라가 질투심에서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를 보내주지 않아 헤라클레스가 예정보다 늦게 태어난 까닭에 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난 칠삭둥이 에우뤼스테우스 밑에서 고역을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칼뤼돈 왕 오이네우스의 딸 데이아네이라와 재혼하게 되는데 그가 후일 오이칼리아를 함락하고 젊은 공주 이올레를 포로로 데려온다는 말을 듣고 중년이 된 데이아네이라는 그의 사랑을 잃을까봐 켄타우로스인 넷소스의 피를 묻힌 옷을 그에게 보낸다. 넷소스는 데이아네이라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네주던 중 그녀를 겁탈하려다가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며 언젠가 남편의 사랑이식을 때 자기 피를 묻힌 옷을 남편에게 입히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옷이 살에 엉겨 붙으며 심한 고통을 가져다주자 헤라클레스는 참다 못해 오이테(Oite) 산에 가서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눕는다. 그는 마침 가축 떼를 찾아 그곳에 왔던 포이아스 또는 포이아스의 아들 필록테테스를 설득하여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활과 화살을 주는데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들은 후일 트로이아를 함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헤라클레스는 사후에 신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 그토록 그를 미워하던 헤라와도 화해하고 제우스와 헤라의 딸 헤베(Hebe 청춘의 여신)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호메로스에서 그는 트로이아 왕 라오메돈이 딸을 구해주면 자기 명마(名馬)들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간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 트로이아를 함락하고 라오메돈과, 프리아모스를 제외한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고 라오메돈의 딸 헤시오네를 동행한 텔라몬에게 준다. 그녀는 그 뒤 그리스군의 명궁으로 ‘큰 아이아스’의 이복동생인 테우크로스의 어머니가 된다. 헤라클레스는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헤라가 보낸 폭풍에 소아시아 앞바다의 코스 섬에 표류하여 심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일로 해서 제우스가 크게 화가나 헤라를 허공에 매단다. 헤라클레스는 또 오이칼리아 왕 에우뤼토스의 아들 이피토스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 티퀼스에 오자 광기가 발작하여 그를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인다. 벨레우스가 이 죄과에 대해 정화해주기를 거절하자 그는 필로스를 함락하고 벨레우스와 그의 아들 열한명을 모두 죽이고 네스토르만 살려둔다. 그는 이때 헤라와 하데스에게도 부상을 입힌다. 오뒷세우스는 저승에 가서 그와 만나게 되나 그것은 그의 환영(幻影)일 뿐이고 그 자신은 올림포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호메로스에서는 그의 아내로 크레온의 딸 메가라와 아스튀오케이아(Astyochaia)가, 그의 아들로는 텃살로스(Thessalos)와 틀레폴레모스(Tlepolemos)가 언급되고 있다.

## 프리아모스 (Priamos)

트로이아의 마지막 왕으로 트로이아 왕가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우스의 아들 다르다노스는 사모트라케 섬에 살다가 소아시아의 프뤼기아(Phrygia)로 건너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테우크로스의 딸과 결혼하고 그에게서 영토 일부를 받아 이데 산 기슭에다 도시를 세우고 다르다니에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트로이아의 전신이다. 다르다노스는 에릭토니오스(Erichthonios)를 낳고 에릭토니오스는 트로스(Tros 그에게서 트로이아란 이름이 유래했다)를 낳고, 트로스는 일로스(Ilos 그에게서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인 일리오스와 일리온이 유래했다)와 가뉘메테스(그는 나중에 미모 때문에 제우스 또는 그의 독수리에 납치되어 그의 술 따르는 시종이 되었다)를 낳고, 일로스는 라오메돈을 낳고, 라오메돈은 티토노스(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남편)와 프리아모스를 낳는다. 그리하여 트로이아의 왕이 된 프리아모스는 헤카베와 결혼하여 많은 아들과 딸들을 슬하에 두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아들 파리스가 스파르테 왕비 헬레네를 데려와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많던 아들이 죽고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참상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헬레네를 원망하지 않고 상냥하게 대해줄 만큼 언제나 다정하고 자상하다. 혼자서 트로이아를 지탱하다시피 하던 장남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자, 그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거액의 몸값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몸소 적진으로 아킬레우스를 찾아간다. ‘서사시권 서사시들’에 속하는 『일리오스의 함락』에 따르면 프리아모스는 트로이아가 함락될 때 제우스 헤르케이오스(Herkeios '가정의 보호자'란 뜻)의 제단으로 피신했으나 네옴톨레모스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 프리아모스는 인간이 맞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최대의 불행울 다 겪은 인간의 대명사가 되었다.

## 파리스 (Paris)

제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사랑했으나 그녀가 아버지보다 더 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는 그녀를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와 결혼시킨다. 이 결혼식에 다른 신들은 모두 초대 받았으나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이 초대 받지 못하다, 그녀는 앙심을 품고 거기 모인 신들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황금 사과를 던진다. 그러자 헤라와 아테네와 아프로디테가 서로 그 사과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신들은 결국 트로이아왕 프리아모스의 아들로서 그때 트로이아 근처의 이데 산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인간들 중에 제일 미남인 파리스(일명 알렉산드로스)에게서 심판을 받기로 하고는 그를 찾아가서 사과를 자기에게 주면 헤라는 ‘아시아에 대한 통치권’을, 아테네는 ‘전쟁에서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절세미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파리스는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준다. 그리하여 그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데려가 트로이아를 전쟁과 파멸 속으로 끌어들이고 헤라와 아테네는 트로이아를 미워하게 된다.

## 헥토르 (Hektor)

헥토르는 프리아모스와 헤카베(Hekabe)의 아들로 안드로마케(Andromache)의 남편이자 아스튀아낙스(Astyanax)의 아버지다. 그는 트로이아인들의 가장 용감한 장수로서 그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자마자 트로이가 함락된다. 그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고귀한 품성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아이네이아스 (Aineias 또는 Aineas 라/Aeneas)

아이네이아스는 앙키세스와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다르다니에인들의 지휘자이다. 그의 증조부 앓사라코스(Assarakos)는 트로스 왕의 아들로 일로스 왕과는 형제간이니, 그의 가문은 트로이아 왕가의 방계인 셈이다. 그는 로마의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s)에서 로마의 건국자로 등장한다.

## 글라우코스 (Glaukos)

글라우코스는 힌폴로코스(Hippolochos)의 아들이자 벨레로폰테스의 손자로 뤼키아인들의 용감한 장수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로는 그가 디오메데스와 우의를 다짐하는 이야기가 특히 유명하다.

## 폴뤼다마스 (Polydamas 원전 Poulydamas)

판토오스(Panthoos)와 프론티스(Phrontis)의 아들로 헥토르와 동갑내기며 트로이아인들의 뛰어난 조언자 겸 장수다.